

‘가야금 본향’ 영암 위상 전국에 알렸다

제8회 김창조 전국국악대전 성료...문화유산 계승 일반부 대상 황소라씨·학생부 대상 정지송 학생

제8회 영암 김창조 전국국악대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리면서 가야금 본향 영암군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영암군은 3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들 간 가야금산조기념관내 공연장에서 ‘제8회 영암 김창조 전국국악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대전은 영암군과 (사)김창조산조보존회에서 주최했으며 전통국악의 계승 발전과 젊은 국악인 등용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대회 개최식과 함께 인간문화재 양승희와 제자들, 영암 어린이 가야금연주단이 함께하는 전야제 축하공연이 진행돼 국악대전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전국대전에는 195개팀 225명의 경연자가 참가해 열띤 기량 대결을 펼쳤으며 가야금·가야금병창·관악·현악 4개 부문에 5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일반부 종합대상에 황소라(가야금)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해 시상금 500만원과 부상으로 가야금을, 학생부 종합대상에 정지송(관악)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해 시상금 100만원과 부상으로 가야금을 받았다.

이밖에도 가야금 부문에서는 고등부

에 오주영씨, 고등부 대상에 문유원, 중등부 대상에 김유림, 초등부 대상에 김채은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현악 부문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박훈씨, 학생부 대상에 김나연 학생이 수상했으며, 관악 부문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황지민씨가 수상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가야금 산조의 본향으로서 가야금산조의 우수

성을 널리 알려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조 전국국악대전은 가야금산조의 창시자인 김창조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국악의 계승발전과 국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국악부문에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암=이봉영기자



제8회 김창조 전국국악대전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들간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내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악대전에는 195개팀 225명의 경연자가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가야금·가야금병창·관악·현악 등 4개 부문 5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영암군 제공

담양 대덕면, 제1회 주민총회

담양군 대덕면(면장 이종표)은 3일 “최근 2020년 핵심 지역발전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 총회에는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최용호 군의원 등 대덕면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덕면사무소는 주민총회 이전에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지역의 현안과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을 도출했으며 이장단과 사회단체지도자, 주민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주민총회에 상정할 최종 의제 8개를 결정했다.

총회에서 상정한 최종 의제 8건 중 주민투표 결과 ▲물레길 및 등산로 조성·정비 ▲대덕면 전체 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교통방안 마련 ▲귀농·귀촌인 유대강화를 위한 대덕자치현장 제정이 선정됐다.

김이수 주민자치위원장은 “선정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영광사랑상품권’ 설 명절 특별 할인판매

기준 5%→10% 할인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영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영광사랑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영광군은 3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상품권을 기준 5% 할인에서 5%를 더한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별 할인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설 명절 전 달과 설 명절이 속한

달까지 이어진다. 종이(지류형) 상품권은 지역 전체 금융기관 31곳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 별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영광사랑카드)도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통합 앱(App) ‘그리고’를 설치한 후 카드 발급과 충전을 하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발행된 영광사랑상품권은 생활밀착형 가맹점인 전통시장과 주유소, 마트, 음식점, 이·미용업소, 약국 등 가맹점 1천8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발행한 ‘영광사랑카드’는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영광=김동규기자

광양시, 난임부부·고위험 임산부 지원 확대

광양시는 3일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비 확대 사업은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모성과 아동

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연령기준도 폐지하며 지원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7회까지 확대했다. 또한 시 자체사업으로 정부 지원 소진자에게

체의수정 시술비를 추가 1회, 200만원까지 지원해 난임부부에게 적극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조기진통 등 19종으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난창 환아의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를 포기·지연하는 가정이 없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광양=허선식기자

목포수협, 서울2호점 보라매지점 개점

목포수협은 3일 “최근 서울 영등포구 보라매역에 서울 제2호 영등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개점식에는 박지원·서삼석 국회의원, 수협중앙회 강신숙 상임이사, 서귀포수협 김미자 조합장 등 전국 수협 조합장과 목포수협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라매지점은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4번 출구 정문 인근 초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다. 영업점 근방 1.5km 이내에는 관공서와 대형병원, 대기업 사옥 등에 9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파트 2만4천여 가구 등 2



1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수협은 보라매지점 개점 기념으로 경품행사, 예탁금 증대 캠페인, 건전 여신 증대 특별 캠페인, 차별화된 비과세 혜택, 맞춤형 영업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강호중기자

목포시, 지방재정집행 중간평가 ‘우수’

목포시는 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중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55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15일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비교한 것으로, 재정집행 실적과 소비·투자 집행실적을 합산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최종평가와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김신남 목포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집행추진단을 구성해 경비 규모가 큰 사업과 일자리 사업을 중점 점검하고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및 추진사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정의 적시집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완도군, 12월 해양치유식품 ‘굴’ 선정

신지·고금 등 年500t 생산...세포기능 활성화 효과

완도군은 3일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석화)을 12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굴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한국에서는 모든 연안에 분포하며 주로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주로 신지면 석화포 앞바다와 고금면에서 양식을 하며 연간 500t 정도를 생산한다.

특히 신지면 석화포의 지명은 바위에 붙은 굴 껍데기가 하얀 꽃과 같아 석화포로 부르고 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가득하다.

단백질 함량이 10.5mg으로 우유의 2배에 해당하며 타우린 다량 함유로 콜레스테롤 감소 및 심장병, 피로 해소 등에 탁월하다. 또 셀레늄이 풍부해 인체 세포기능 활성화와 중금속 해독에도 효과가 있다.

생굴의 맛을 즐기는 서양인들은 레몬을 많이 뿌려 먹는데 이는 레몬의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돕고 굴에 함유돼 있는 타우린의 손실을 예방해주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은 굴이 정력에 좋다고 믿었으며 동양에서는 굴을 먹으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해 여성들이 좋아했다. 속담에도 ‘배 타는 어부 딸은 얼굴이 검어도 굴 따는 어부 딸은 얼굴이 하얗다’는 말이 있다.

동의보감에도 굴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살결을 맑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굴이 다른 조개류에 비해 아연, 철분 등과 같은 무기질 풍부하고 멜라닌 색소 분해 성분과 비타민A(레티놀)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완도=윤보현기자

장성토지 [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 ~ 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접(앞면30m)

- ① 평수230평 매매가 1억 6천만원
- ② 평수1,080평, 매매가 시세 10억

↳ 급매가 6억원

⇒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 추천물건

- ① 장성읍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 8천5백만
- ② 장성 아은리(계획관리)500평 → 매매가 4억7천만
- ③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 6억5천만
- ④ 장성필암리(담)925평 → 매매가 2억8천만
- ⑤ 담양읍메타세쿼아도로점(1470평) → 매매가 8억2천만
- ⑥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 5억9천만

010-6670-9800

상가매매

-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 평 (대형룸1, 큰방1, 부엌1, 화장실1) -주택, 사무실 적합 -즉시 입주가능, 울 리모델링 -매매가 7천8백만원
- ② 치평동상가 6층~7층 [140평] (유홍주점, 카페, 노래방적합) -골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감정가 6억5천만원 -매매가 4억2천만원 (보3천만원, 월280만원, 용지2억8천만원)
- ③ 치평동상가 7층 [60평] -전망최고 -감정가2억8천만원 / 급 매⇒1억5천만원
- ④ 용봉동 원룸 매매 [룸15개, 주택1] -매매가 7억2천만원 (보증금4천만원, 월수입450만원, 용지2억8천만원)

상가임대

-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 평 (대형룸1, 큰방1, 부엌1, 화장실1) -주택, 사무실 적합 -즉시 입주가능, 울 리모델링 -보500만, 월40만원(용지3천만원)
- ② 치평동상가 7층 [60평] (Bar, 유홍주점, 카페, 노래방적합) -골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보1천만원, 월90만원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

-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 ◎ 기초이론+실전
- ② 중급 실전반
 - ◎ 중급이론+실전
- ③ 고급 특수반 모집
 - 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 ※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 ⑤ 경매투자 연30%수익 가능
 - 근저당 설정서 연20% 가능

010-4667-9820